

2025/02/13

농심

권우정 책임연구원
20240006@iprovest.com

4Q24 Re: 일회성 비용과 판촉 증가 영향

투자의견 BUY 및 TP 46만원 유지

통상임금 비용 및 판촉비 증가 영향으로 영업이익 컨센서스 -46% 하회

4Q24 Re: 일회성 비용과 판촉 증가 영향

4분기 연결 매출액 및 영업이익은 각각 8,551억원(YoY 0.6%), 204억원(YoY -47.6%) 시현. 시장기대치(378억원)을 -46% 하회. 국내/해외 영업이익이 각각 YoY 100억원 내외 감소한 것으로 파악됨. 일회성 비용 (90억원) 및 판촉비 증가 영향으로 영업이익 부진했던 것으로 파악됨.

[한국(별도)] 매출액 6,632억원(YoY 0.6%), 영업이익 100억원(YoY -57%) 추정. 통상임금 관련 비용 90억원 영향 존재. 원가단은 팜유 가격 상승이 일부 부담 작용.

[미국] 매출액 YoY 4% 추정. 총매출 기준 월마트 매대 이동 효과 크로거 SKU 신규 입점 효과로 YoY 10% 이상 성장했지만, 매출 에누리 증가로 순매출 증가 제한적이었음. 이익은 성수기 프로모션 증가+재료비 증가+신규 라인 가동에 따른 제조 가공비 증가 영향으로 YoY -52% 감소 추정됨.

크로거 내 SKU 3~4개 확장한 것으로 파악됨(기존 SKU 22개). 또한, 신라면 틈바는 12월부터 한인 마켓 중심 입점. 미국 내 월마트 온라인 물 입점 후 오프라인 확대 예정

[그 외 법인] 해외 매출액은 중국 YoY -10%, 베트남/일본 High-teen, 호주 20%대 성장 추정.

올해는 회복을 기대해보자

미국 월마트 내 라면 카테고리가 아시안 매대 → 메인 매대로 이동. 매대 이동은 동사를 포함한 글로벌 경쟁사도 포함되는 것으로 파악됨. 일본 경쟁사들도 월마트 매대 이동에 대해 미국인들의 라면에 대한 인식 및 트렌드가 긍정적으로 변화하고 있다고 언급한 바 있음. 미국 시장 경쟁 자체는 치열해지고 있는 상황이지만, 전체 미국 라면 수요는 긍정적인 흐름인 것으로 파악됨. 동사는 신라면 틈바 런칭 등으로 매출 동력 확보해 나갈 전망이다. 또한, 최근 유럽 중심 수출 20~30%대 증가 흐름 역시 긍정적임.

■ Compliance Notice ■

이 자료에 게재된 내용들은 작성자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,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.

이 조사항목은 당사 리서치센터가 신뢰할 수 있는 자료 및 정보로부터 얻어진 것이나, 당사가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증하는 것이 아닙니다. 따라서 이 조사항목은 투자참고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라며, 어떠한 경우에도 고객의 증권투자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. 또한 이 조사항목의 지적재산권은 당사에 있으므로 당사의 허락 없이 무단 복제 및 배포할 수 없습니다.

당사 리서치센터 연구원은 고객에게 카카오톡 메신저 등으로 개별 접촉하지 않습니다. 당사 연구원 사칭 사기 등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.

- 동 자료는 제공시점 현재 기관투자가 또는 제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.
- 전일기준 당사에서 1%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.
- 추천종목은 전일기준 조사분석 담당자 및 그 배우자 등 관련자가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.

■ 투자 의견 비율공시 및 투자등급관련사항 ■ 기준일자_2024.12.31

구분	Buy(매수)	Trading Buy(매수)	Hold(보유)	Sell(매도)
비율	96.9	2.5	0.6	0.0

[업종 투자 의견]

Overweight(비중확대): 업종 펀더멘탈의 개선과 함께 업종주가의 상승 기대
Underweight(비중축소): 업종 펀더멘탈의 악화와 함께 업종주가의 하락 기대

Neutral(중립): 업종 펀더멘탈상의 유의미한 변화가 예상되지 않음

[기업 투자기간 및 투자등급] 향후 6개월 기준, 2015.6.1(Strong Buy 등급 삭제)

Buy(매수): KOSPI 대비 기대수익률 10%이상
Hold(보유): KOSPI 대비 기대수익률 -10~10%

Trading Buy: KOSPI 대비 10%이상 초과수익 예상되거나 불확실성 높은 경우
Sell(매도): KOSPI 대비 기대수익률 -10% 이하

